

“실제 이시연과 캐릭터 사이 괴리감으로 스트레스 받아”

이시연 “연예인이라 상처? 인사 안 한다고 혼내시는 분도”



배우 이시연이 연예인이라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고 했다. 이시연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정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영화 ‘아내를 죽였다’ 관련 뉴스1과 인터뷰에서 “실제 나는 그렇게 출렁거리지는 않는다. 나이는 30대 후반이다”라며 “나 혼자 산다” 속의 모습도 내 모습을 이기는 한데, 오랜 시간 녹화를 했다 그 장면 편집해 붙이는 거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실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시연은 “나 혼자 산다”로 상처를 많이 받았느냐”는 질문에 “상처는 많이 받았다. ‘나 혼자 산다’ 때문만은 아니

다. 모든 연예인들이 그런 상처를 다 받지 않을까. ‘나 혼자 산다’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시연은 실제 인간 이시연과 예능 및 작품 속 이시연 사이의 괴리감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그는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많다.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이시연 왜 인사 안 해? 나 같은 아파트 산다’고 하셨다. 할 말이 없더라. 뭐라고 말해드려야 할지... 왜 먼저 인사 안 하는냐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나는 처음 봤는데, 그분들은 나를 봐서 아는 사람 같은 것이다”라고 경험담을 알렸다.

또한 “그냥 팔을 잡는 분도 있고, 가만히 서 있는데 카메라를 대시는 분도 있다. 보통 한참 어리게 보신다. ‘몇 살이야 자기?’ ‘서른 여덟입니다’ 하면 놀라신다. ‘죄송하다’고 하는 분도 많다. 친구들이랑 뼈뺀 거고 하니까 모자라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화에 캐스팅 된 배경에 대해 “감독님이 나 혼자 산다”를 다 보셨다고 하더라. 가끔 영화 속과 비슷한 톤으로 짧게 연기했던 게 몇 개 있었다. 그런 드라마들을 보셨다고 하더라. 그래서 믿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봐서 캐스팅을 했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시연은 “나 혼자 산다”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가 한층 더 강해졌다. 배우로서는 이처럼 실생활 속 자신의 캐릭터가 부각되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는 상황. 이시연은 “예능 이미지를 지우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 혼자 산다”를 한지 3년, 4년째 되는 것 같다. 처음에는 부담이 있었다. (활동에 대한) 방향이 잡히지 않았을 때, ‘나 혼자 산다’가 큰 인기를 얻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닌데’하고 생각했었다. 지금은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시연은 ‘아내를 죽였다’에서 만취한 다음 날, 아내를 죽인 용의자로 몰리게 된 남편 정호 역을 맡았다. ‘아내를 죽였다’는 만취한 다음 날, ‘블랙아웃’으로 기억을 잃은 상황에서 아내를 죽인 범인으로 몰린 남편이 누명을 벗기 위해 도망을 다니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스릴러 영화다. 희나리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 ‘아내를 죽였다’는 11일 개봉한다.

뉴스1

믿고 보는 문세윤... ‘1박2일 시즌4’ 웃음 살린 맹활약

다소 어색할 수 있는 첫 만남 풍성하게 만들어



문세윤이 ‘1박 2일’ 첫 신고식을 제대로 치렀다. 지난 8일 처음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시즌4’에서는 연정훈, 김종민, 문세윤, 디디, 김선호, 라비로 이뤄진 새 멤버들의 첫 만남이 그려졌다. 이날 멤버들은 촬영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러운 출근길 미션을 수행해야 했다. 각자 있는 장소에서 알아서 KBS 본관이 있는 여의도로 가야 하는 자생력 테스트인 것. 주변에 대중교통이 없는 외진 곳에 떨어진 문세윤은 택시를 타고 대중교

통을 이용했지만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미션 실패자가 됐다. 그럼에도 자신보다 더 늦게 온 김선호에게 “첫 만남에 너무 한다”며 태세를 전환해 웃음을 지어냈다. 이어 ‘1박 2일’의 시그니처 복불복인 까나리 복불복이 시작됐다. 멤버들은 여행용 SUV 탑승을 위해 아메리카노 혹은 까나리카노 원샷을 시작했다. 문세윤은 첫 잔은 아메리카노를 골랐지만 두 번째 잔에서 까나리카노를 마시고 말았는데, 까나리카노의 강력함을 온 몸으로 표현해 폭소를 유발했

다. 이후 중복 다양으로 출발한 멤버들은 가는 도중 까나리카노로 인한 배변신호로 휴게소에 들렀다. 가장 먼저 화장실에서 나온 문세윤은 멤버들을 기다리며 “속세의 때를 벗겼다”며 너스레를 떠는가 하면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멤버들의 모습을 생중계 하며 보는 재미를 더했다. 이날 문세윤은 ‘1박 2일’ 멤버들 사이에서 상황을 재미있게 진행하며 다소 어색할 수 있는 첫 만남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 운전을 하면서는 멤버 각각의 매력과 캐릭터를 언급하며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를 형성, ‘1박 2일’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문세윤은 ‘맛있는 녀석들’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 ‘코미디 빅리그’를 비롯해 ‘고급식왕’ ‘극한직장’ 등 스튜디오와 리얼리티 예능을 오가며 믿고 보는 연예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KBS의 간판 예능이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1박 2일’에 입성한 문세윤이 어떤 활약으로 웃음을 줄지 기대를 더한다.

뉴스1

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심경 고백 “빛 9억 육박...남자 트라우마”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월간지 ‘우먼센스’를 통해 이혼 후 근황을 전했다. ‘우먼센스’는 최근 낸시랭과 나눈 인터뷰를 12월호에 게재했다. 현재 낸시랭은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긴 상태다. 그녀는 “그 사람 때문에 사체를 썼고 이자만 6백만원에 달한다”라며 “빛이 계속 늘어 현재는 9억에 육박한다”라고 밝혔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본명 정준주)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8년 10월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낸시랭은 “남자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라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의 가장 큰 길잡이 가족을 만드는데 있었다. 그만큼 외로움이 고통스러웠다”라고 심경을 털어놓



기도 했다. 이어 “이제 여자로서의 행복을 내려놔야. 사랑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답답히 전했다. 낸시랭은 결혼 당시 자신을 걱정해줬던 대중들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녀는 “사생활 관련 뉴스로 피곤함을 느껴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라며 “그때는 사랑을 믿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아티스트로서 재기하는 모습을 꼭 보여 드리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뉴스1

‘겨울왕국2’ 역대 국내 애니 흥행 1위

영화 ‘겨울왕국2’ (감독 크리스 벅, 제니퍼 리)가 개봉 3주 만에 국내 개봉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다. 9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7일 ‘겨울왕국 2’는 개봉 17일 만에 누적 관객 수 천만 명을 넘어서며 2019년의 다섯 번째 천만 영화(역대 8번째 천만 영화)로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달성했다. 여기에 개봉 3주 만에 ‘어벤저스: 엔드게임’ ‘아타라’ ‘알라딘’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에 이은 역대 국내 개봉 외화 흥행 5위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국내의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작인 전편 ‘겨울왕국’의 최종 관객 수 1029만 명을 뛰어넘고 역대 국내 개봉 애니메이션 흥행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포드V페라리
2관	겨울왕국2
3관	감쪽같은 그녀
4관	겨울왕국2
5관	나이브스 아웃
6관	겨울왕국2
7관	블랙머니
8관	겨울왕국2, 너의 여자친구, 아직 사랑하고 있습니까?
9관	나를 찾아줘, 감쪽같은 그녀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나를 찾아줘, 블랙머니, 감쪽같은 그녀
2관	겨울왕국2, 러브 앳, 블랙머니
3관	포드V페라리
4관	겨울왕국2,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5관	겨울왕국2, 나를 찾아줘, 포드V페라리
6관	겨울왕국2, 포드V페라리, 나이브스 아웃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